

곡성 기차여행 '요금 반값'...코레일과 업무협약

내년부터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 운영 기차마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운임 반값으로 곡성 기차여행이 가능해진다.
곡성군은 내년 1월부터 기차를 이용해 곡성을

여행하면 열차 운임 50% 할인과 곡성성진강기차마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여행 상품 '다시 잇는 대

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하 지역사랑 철도여행)'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은 코레일이 인구감소 지역의 위기 극복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상품으로, 지난 27일 곡성군과 코레일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하게 됐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기차여행 만들기', '자유여행 상품',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 등 약 240개의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전국 33개 지자체와 협약이 체결됐다. 전남지역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곡성을 포함해 기존 운영하고 있는 보성·장성·함평 등 총 4곳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전국 33개 지역을 여행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반값 운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곡성으로 오가는 왕복열차 상품을 이용한 후 곡성군에서 지정한 관광지 최대 10개소 중 1개소에서 코레일특으로 QR 인증해서 할인 쿠폰을 받으면 된다.

이번 상품은 기차운임 할인 외에도 관광택시 연계, 주요 관광지 및 체험상품 할인, 지역상권과의 협력방안도 준비되어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곡성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차 여행길이 활짝 열렸으니,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다양한 곡성으로 많이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곡성군이 지난 27일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운임 반값 할인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고흥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국 1위'

최우수 관리기관 선정 기관 표창

고흥군이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1위) 관리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진】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전국 10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을 용량별 기준에 따라 3개 그룹(I, II, III)으로 구분하고, 운영 및 관리 3개 분야의 27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의 1차 평가와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통해 그룹별 1-3위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흥군의 평가대상시설은 동강면 청정식품단지 내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

번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경제성, 안전관리 대응 능력, 시설 운영 전문성 등 여러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달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연찬회'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와 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과 신승민 주무관이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공폐수처리장 노후화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영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효율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입주기법 및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지방자치 경쟁력 호남 1위·전국 22위 '꽤저'

신산업 육성·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 높은 평가

광양시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호남 1위·전국 22위를 기록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하 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광양시가 1000점 만점에 607.3점을 기록해 호남에서 가장 뛰어나고, 전국에선 상위 10% 내 달성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광양시가 전국 8위에 올랐다.

KLCI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공식 통계자료

250여개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226개 지자체의 경쟁력을 수치화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서, 지난 1996년부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607.3점을 획득한 광양시는 그간 추진했던 신산업 육성과 복지정책 혁신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평균(481.8점)을 크게 웃돌 정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부분 '우수 지자체'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광양시가 상위

10%에 랭크됐다.

광양시는 동호안 규제 해소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이차전지로 대표되는 신산업으로 성공적인 경제 체질 변화를 이뤘다. 또한 광양시민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힘써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인구 증가한 도시로 주목받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광양시가 큰 성과를 거뒀다. 모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복합커뮤니티 불링장 시설 민간투자자 '혜담' 선정

내년 8월까지 14개 레인 건립

보성군 복합커뮤니티 내 불링장 시설 사업이 민간투자자 선정으로 박차를 가하게 됐다.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읍에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불링장 시설 등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노력한 결과 민간투자자로 '혜담 주식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불링장 시설 등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직영 또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지속 투입될 운영비 등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12차례에 걸친 사업자 모집 결과 엄격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혜담 주식회사'를 낙점하게 된 것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시공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익성 및 항의성, 자금조달 및 투자비 환수계획, 손익 분석, 홍보계획 등을 심사했다.

향후 혜담 주식회사는 보성군과 협약체결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14개 레인 규모의 불링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 감정평가금으로 기부채납한 뒤 투자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혜담 주식회사가 민간투자자로 설치하는 시설은 14레인 규모의 불링장(1163㎡)과 부속 휴게실(130㎡), 롤러 장비 대여점 및 매점(61㎡) 등이다.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김철우 보성군수는 "불링장, 롤러장 등의 여가체육 시설이 군민의 저녁과 주말에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등 여가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민간투자자 선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인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

면적 16,080㎡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 시설은 14레인 규모의 불링장, 롤러장,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소공연장, 군의회 등으로 상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드림스타트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223대의 주차 공간도 보유하고 있어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성료

공모사업 발굴·제안서 작성 교육

주민의견 수렴·예산 투명성 높여

구례군이 최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군민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목적,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발굴과 제안서 작성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이달부터 '젤 타입 아이스팩' 재사용 중단

환경부 폐기물부담금제 시행따라

이달부터 여수에서 '젤' 형식의 아이스팩은 재사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여수시는 고흥수성 수지인 젤 타입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12월1일자로 중단했다.

시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동 주택 등의 수거함을 통해 아이스팩을 재사용키로 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환경부에서 (젤 타입)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배출량이 급감한 데다, 물이나 전분 등 친환경 소재의 아이스팩이 사용되면서 여수시도 재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젤 타입)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면 되고, 친환경 소재 아이스팩은 내용물 제거 후 포장재만 분리 배출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1.2km 구간 노후 송배수관 교체

광양시가 내년부터 관내 노후된 송배수관 교체 공사가 진행된다.

광양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양을 경찰서 앞 사거리-유당공원 앞까지 이어진 용강정수장 계통 대형 송배수관(D600mm) 1.2km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상수관로는 설치한 지 30년 이상이 됐으며,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상수관 노후와 부식으로 인한 누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총 65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시작됐으며, 본격적인 교체작업은 내년 초에 착공해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공사하는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며, 공사 일정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광양시 전역의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고 상수도 관리 효율성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 수상

순천시가 최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평가는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4개 부문에 대해 기본지표와 정책지표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서면 평가와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순천시는 비도시지역·농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심지역 재생 및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 지원체계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시환경 부문에서 저유지와 도로를 활용해 오전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등 생활권 공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활용도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 곳곳을 문화콘텐츠로 채운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거듭나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